

탄소소재 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구축

탄소산업은 전 세계에서 시작해 국가산업이 된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씨앗을 뿌리며 지난 20여년간 탄소산업의 키워드였다.

2006년 '탄소산업'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할 만큼 탄소산업의 미래 가능성에 주목해 생산, 연구개발, 기업 집적화 기반구축 및 상용화 등을 집중 육성했다.

그 결과 탄소섬유 원천기술개발 및 대량생산 공장준공과 국내 유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탄소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한국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구기관 및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이뤘다.

더불어 탄소소재법 제·개정,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전국 최초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국내 탄소산업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신시장 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탄소산업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됐다.

▲탄소소재,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미래핵심 소재
탄소소재는 철강의 대체 소재로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며, 전세계적으로 우주항공,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등의 미래핵심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탄소소재·부품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융합을 통한 산업확장 및 기술

탄소소재 기술융합 통한 5대 핵심수요산업 기반 확대 인프라·연구개발·기업육성 등 집적화 기반 마련

지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에서 탄소섬유, 인조흑연, CNT 등 탄소소재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소재이다. 초경량, 고강도, 온도 변화에 대한 형상 안정성 등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항공기 동체·날개, 인공위성 발사체, 탐사선 동체 등의 핵심 부품소재로 쓰이고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된다.

최근,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배터리, 우주·항공, 라이프케어 분야가 탄소복합재 최대 수요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전북도는 기업·연구기관·학과와 함께 R&D 에타과제를 발굴, 반영시키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기술을 고도화하고 탄소소재 응용범위를 확장시켜 산업 생태계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소재 융복합 핵심수요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으로 미래 신시장 선점
아울러 전북의 최대 강점 산업인 탄소산업의 비약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20대 대선공약 아젠다로 '탄소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확충'을 선정하고, 지역공약에 반영시키면서 탄소산업 확장을 모색했다.

이를 기화로 탄소소재·부품산업 융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화시키고, 핵심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새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증기반 구축사업으로 우선, 최근 환경 이슈로 인한 친환경차 시장 및 근거리 항공 이동수단 등 성장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분야에 탄소소재·부품(UAM 동체, 수소저장용기 등) 적용을 위한 실증기반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 이차전지, 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원 주요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및 분석·가공·공정 팹셔너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 성장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산업 선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새정부의 7대 우주강국 도약 정책 추진에 발맞춰 그간 전북에서 추진해 온 연구개발 고도화를

통해 극한환경용 초고강도, 고탄성 프리미엄 탄소섬유 개발과 대전·경남·전남지역을 잇는 탄소소재 생산·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새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구조물 건축용 파일 등 재난안전 탄소복합 건축재 현장 실증기반 조성 등 탄소소재·부품의 핵심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소재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며,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5대 수요산업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산업의 확장을 가속화해 나가는데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전역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작년 12월부터 도내 38개소 발생... 아침·저녁 큰 온도차로 5월초까지 유행 예측·예방 중요

전북도는 도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13일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북도는 도내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작년 12월 2건을 시작으로 올해 1~4월까지 36건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총 38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3일 도내 전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도내 돼지유행성설사병은 2019년 46건, 20년 10건, 21년 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 36건으로 다발하고 있어 아침저녁 온도차가 큰 5월초까지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올해 발생농가의 PED 바이러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유행중인 PED는 모두 G2b형으로 유전형과 맞지 않는

백신을 사용할 경우 방어력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G2b형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양돈 전문수의사는 "일부 농가에서는 제대로 된 PED 백신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해 생독 또는 사독백신만 접종하고 있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다가 발생 후 잘못된 인공감염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PED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후보돈의 경우 생독·생독·사독·사독,

교배 후에는 생독·사독·사독의 방법으로 총 7회의 백신을 접종하면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PED 예방은 철저한 차단방역에 달려 있으므로 농가 방역시설 설치·개선, 적정 프로그램에 따른 G2b형 백신접종,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통제, 후보돈 입식시 방역관리와 함께 5월 초까지 위험시기에는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젊은 지방자치, 청년이 만듭니다"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청년 출마예정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대교체 시대전환! 젊은 지방자치, 청년이 만듭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기관을 위한 경영컨설팅 온라인 상담 창구 개설

전북사회서비스원, 노무·세무 분야 경영상 어려움 해결 위한 온라인 상담 개시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도내 사회서비스기관의 경영컨설팅지원원을 위한 노무 및 세무분야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경영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이 노무, 세무 분야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온라인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상담은 전북사회서비스원이 위촉한 전문컨설턴트인 서갑두 회계

사(회계법인 더함), 최명진 노무사(노무법인 정훈)가 도내 사회서비스기관의 문의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서양열 원장은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 온라인상담을 시작한다. 기관 운영의 고민을 해결하고 사회서비스기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은 경영컨설팅지

원사업의 일환으로 법률·노무·세무 방문컨설팅 지원 기관도 모집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jnbuk.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영컨설팅 이외에도 시설안전점검, 역량강화교육 등 사회서비스기관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사항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도,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20~26일 음식점 위생점검

전북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가축단위로 즐겨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라북도와 시·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여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배달음식점 등 2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이다. /유호상 기자

도,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15명 배치

전북도는 18일자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16기) 15명을 동물위생시험소(10명) 및 시·군(5명)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수의사 자격 취득 및 수의대 졸업 후, 군 복무 대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감사 기관에 의무 복무 기간(3년)동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신규 임용된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관으로서 일선 현장에 투입되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상예찰, 구

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단 방역을 위한 실무 업무 및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축산물위생감사 업무를 하게 된다.

이에 도 관계자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강화된 상황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수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가축방역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 공중보건 및 가축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제42회 장애인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참가자 대상: 만16세 이상 장애인 누구나
- 참가제외: 전국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 가수활동자 제외
- 참가접수: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증명서)(국명, 성명, 전화, 주소 기입, 개인,그룹 환영)
- 접수방법: 방문, 전화(063)236-6678, 팩스(063)287-6676
* 방문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삼로 1, 5층
- 예 선: 2022.06.05.(일) 오전 10시(동남문화광장)
- 본 선: 2022.06.05.(일) 오후 2시(동남문화광장)
- 개회식, 공연, 경연, 행운권 추첨 등

○ 일 시: 2022.06.05.(일) 오전 10시
○ 장 소: 전주 동남문화광장(동남문 옆)
○ 주 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주 관: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전주매일신문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 063-286-6678 ☎ 063-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